

만남

600

Grace!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02 2024
통권 600호

교회표어

영락이여, 올라가라 (사사기 1:1~2)



표지설명

<만남> 600호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사랑에 멋진 꽃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함께한 모든 순간에 감사하며, 날마다 새로운 <만남>을 소망합니다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5대 본질



2월 목회력

- | | | | |
|------------|---|------|-----------------------|
| 02 금 | •자녀와 함께하는 가정 축복 특별기도회 | 03 토 |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
| 04 주일 | •찬양예배 성찬 | 16 금 | •자녀와 함께하는 가정 축복 특별기도회 |
| 18 주일 |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제직부흥회, 제직회, 심방준비회, 상담부 공개강좌 | | |
| 18 주일~23 금 | •포이메네스 목회자 영성수련 | 24 토 | •아동부 봄맞이성경학교 |
| 23 금 | •자녀와 함께하는 가정 축복 특별기도회 | | |
| 25 주일 |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사회봉사주일, 신임권사 임직 및 현신예배 | | |

만남

2024년 2월호
통권 600호

Contents



이달의 말씀

02 <만남> 600호에 감사하며 • 김운성

특별기고

04 말씀을 읽을 때 친밀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 강준민

600호 특집

07 600호 특집 독자 설문조사

12 위임목사 인터뷰 • 박선이

20 만남 '산증인' 2人에게 듣는다 • 인 미

22 <만남> 소장자대회 수상자 인터뷰

24 美 알버커키서 날아온 축하 메시지 • 이경화

다음세대

26 주님의 마음 있는 곳이 우리의 종착지입니다

28 '중보기도' 기쁨을 알았습니다 • 조보경

29 성경부서 청년 리더들 "한 뼘 더 성장할 것"

땅끝까지 이르러

32 필리핀 안티풀로 지역에 복음의 씨앗 뿌리다 • 조원형

34 전도, 하나님 일하심이 거기에 • 하진희 / 장수연

영락의 읊터리

36 사랑받고 사랑하는 특별한 사랑부 • 전찬욱

38 2024년 성탄절엔… • 홍권옥

40 치질, 쉬쉬하다 큰 탈 난다 • 정형석

문화광장

42 빛이 있는 동안 빛 가운데로 걸으라 • 남정열

43 영락시어터 2월 상영 영화

교회소식

44 새가족 / 유아세례, 세례, 입교 명단

48 2024년 제직부서 신임 차장 / 2024년 부서지도 전도사

50 예배와 기도로 시작한 2024년 외

55 예술의 본질은 '점, 선, 면' • 정재원

56 600호를 발간하며 • 김태영



<만남> 600호에 감사하며

김운성 위임목사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요한계시록 21:5~6)

<만남>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며, 교회의 목회 소식을 전하기 위해 1973년 2월 15일 창간되어 영락교회 홍보출판부가 발행하고 있는 영락교회의 유일한 월간지입니다. 영락교회에는 <만남>이 창간되기 이전에도 기관지로 발행하는 간행물이 있었습니다. 1961년 당시 교회 장년면례회가 발행한 <면례>가 그것입니다. <면례>는 1964년 37호까지 발행 후 <영락>이라는 이름으로 제호를 바꿔 발행하다가 1966년 3월에는 <영락월보>로 재창간되었고, 1969년에는 제호를 다시 <영락>으로 환원하여 1974년까지 발행해 왔으나, 전 해인 1973년 2월 창간되어 발간되고 있던 또 하나의 월간지인 <만남>을 당회가 기관지로 인가 결의함에 따라 자동 폐간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상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만남> 소개 글의 일부입니다. 1973년 2월 15일에 창간된 <만남>이 2024년 2월 호로 600호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흐른 세월이 반세기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꾸준히 간행되었다고 하니, 멈춤 없이 전진해 온 영락교회답습니다. 지난 반세기는 격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대통령이 시해되고, 정부가 바뀌는 어두운 사건과 함께 민주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서울올림픽을 개최하고, 군사력, 경제력을 비롯하여 문화, 예술, 스포츠 등 여러 영역에서 국력이 신장하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반세기는 교회도 급격한 변동을 겪은 시간이었습니다. <만남>이 창간되던 1973년

반세기 동안 영락의 영적·정서적 베다니광장 역할 변화와 도전 두려워 말고 ‘복음의 배달부’가 되길



6월 3일 하루에 백만 명이 운집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예의도 집회가 있었고, 1984년에는 한국 교회 백주년기념대회 역시 여의도에서 백만 명 이상이 모인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 두 집회를 위해 한경직 목사님과 영락교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 교회는 많은 대형교회가 출현하고 교인이 증가하는 양적 팽창을 경험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한국 교회에 큰 시련도 가져왔는데, 2천 년 대에 들어서며 교인이 줄기 시작하여 현재와 같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3년간의 코로나는 더 심각한 숙제를 안겨주었습니다. <만남>은 이런 반세기의 역사를 뛰뚫고 600호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영락교회 성도들은 영적, 정서적 베다니광장인 <만남>에서 만났습니다. 지금도 <만남>에서 주님과 성도와 각 부서와 사역을 만납니다. 연로하신 성도들은 <만남>이 도착하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만남>을 폐낸 분들과 구역을 통해 전달하는 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제 <만남>은 새로운 반세기를 향해 출발합니다. 소통의 방식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IT 강국의 국민답게 우리 대부분이 SNS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엄청난 정보가 쏟아지고, 정보가 창출되는 순간에 이미 수많은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이런 현상은 놀림과 함께 탄식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많은 정보 중에는 치명적 독소가 들어있어 무수한 사람의 정신과 영혼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남>은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빠른

정보, 정확한 정보와 함께 신앙과 인생, 그리고 영락교회의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와 교제와 봉사를 위한 성경적이고 참신하고 정결한 정보를 전해야 할 사명 앞에 서 있습니다. <만남>이 세상의 독소를 제거하는 '살리는 소식'의 배달부가 되길 원합니다. 살리는 소식은 생명의 소식이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Good News, 즉 복음입니다. 이 생명의 정보들이 사랑의 강물에 띄워진 편지처럼 성도들의 가슴에 도착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만남>은 앞으로 다양한 변신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용도 더 포괄적이고, 시의적 절한 이슈를 담아야 하고, 전달하는 방법도 다양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세상에서 접할 수 없는 따스한 이야기, 성도들의 삶과 거기 스며드는 주님의 은혜가 담겨야 합니다. 영락교회 공동체의 복음을 위한 헌신과 도전이 숨 쉬는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만물이 궁극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꾸준히 새롭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락교회와 그 지체들과 <만남>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움을 향해 두려움 없이 달려가길 원합니다. 교회 창립 80주년을 위한 기도는 90년, 100년을 향해 날마다 더 새로워지려는 몸부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셨고, 앞으로도 함께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을 읽을 때 친밀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만남> 600호, 성실하고 지속적인 위대한 성취

영락교회 <만남> 600호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600호까지 지속된 <만남>의 역사는 아름다운 성취입니다. 위대한 열매입니다. 저는 진정한 위대함은 지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반짝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하고 지속하며 횟수를 더해가는 성실함이 위대한 것입니다. 600호에 이르도록 <만남>이 지속되기까지, 수많은 분의 기도와 땀과 정성이 함께 했음을 압니다.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곳, 무대 뒤에 선 영웅들의 수고가 함께했음을 압니다. 수고한 모든 이에게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상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립니다

600호 출간을 기념하며, 말씀을 읽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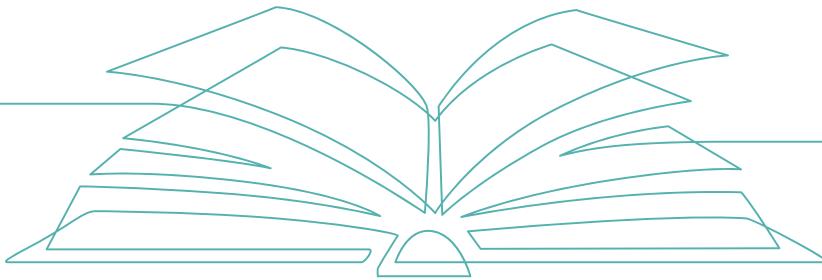
강준민 목사
L.A. 새생명비전교회 담임

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어 읽는 순간에 우리 영혼의 창이 열리고, 깊은 말씀의 세계가 열립니다. 천상의 세계가 열립니다. 영원한 세계가 열립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말씀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읽음은 사랑입니다. 읽는 순간 사랑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본회퍼는 성경을 읽을 때 연애편지처럼 읽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연애편지입니다. 연애편지를 읽을 때 우리는 그냥 읽지 않습니다. 집중합니다.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사랑하는 분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장을 방문합니다. 사랑하는 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분의 감정을 느낍니다.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성경 읽는 만큼 사랑하고 예수님 닮아갑니다

성경을 읽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사랑하면 보게 됩니다. 사랑은 눈뜸입니다. 사랑하면 배우게 됩니다. 사랑은 배움을 낳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배웁니다. 사랑하면 이해하게 됩니다. 폴 투르니에는 “사랑하는 것만큼 이해하고,



“이해하는 것만큼 사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면 닮게 됩니다. 사랑하면 기억하게 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기억의 예술은 사랑의 예술입니다. 사랑하면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사랑하면 기록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기록한 것을 나누고 전수하게 됩니다.

읽음은 만남이요, 만남은 친밀한 교제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만남이 전개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성경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만나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엿들으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제하는 대화를 엿들으십시오. 성경의 분위기를 함께 느끼십시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때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읽는 만큼 우리 영혼의 색깔도 달라집니다

읽는다는 것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읽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만듭니다. 우리는 읽는 것에 의해 변화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읽음은 먹음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 영혼은 힘을 얻습니다. 시든 영혼이 소생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성품은 예수님이 성품으로 변화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읽는 것에서 영향받습니다. 우리의 읽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물들입니다. 우리 영혼의 색깔은 우리가 읽는 것에 의해 변화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언어를 낳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행동을 낳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습관을 낳습니다. 우리의 습관이 성품을 낳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미래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거룩한 기대를 품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만날**





특집



• • • • •



독자설문조사 # <위임목사 인터뷰 # <만남> 그리고 사람들

15 600호 특집 독자 설문조사 12 소통 통로로 디지털 만남도 강화해 주세요

20 만남 '산증인' 2人에게 듣는다 22 오래된 <만남> 수상자 인터뷰

24 美 알버커키서 날아온 축하 메시지

기도, 기대, 기다림의 기록

<만남>이 600호를 맞이했습니다. 1973년 2월 창간 이래

오늘의 600호에 이르기까지 <만남>은 영락 성도들의 삶과

신앙의 이야기들을 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만남>은 성도들과 함께 소망의 이야기들을

넉넉히 담아내는 그릇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600호 특집 독자들께 물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만남>을 어떤 방식으로 읽고 있는지, 어떤 기사를 좋아하는지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미래에 변화하여 나아갈 방향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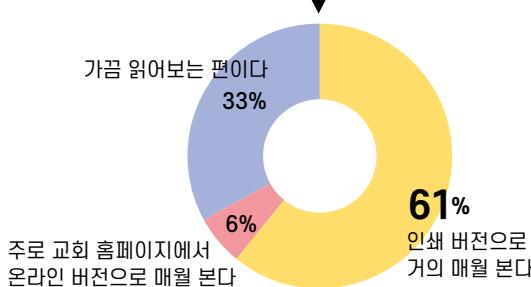
오프라인 설문지와 구글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2024년 1월 14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183명이 응답했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이름, 연령 등 개인 정보는 선택 사항이었으며, 69명이 연령에 대해 답했습니다.

<만남>의 발행 형태별, 또 읽는 주기별 내용을 묻는 질문에서 먼저 발행 형태별로는 종이잡지로 읽는다는 응답자가 61%를 차지했으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e북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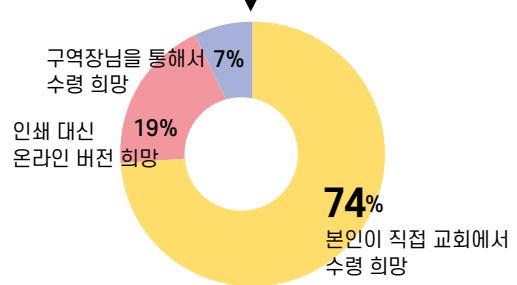
태의 온라인 버전을 읽는다는 답은 6%에 그쳤습니다. 한동안 별도 앱으로 발행하던 <만남> 온라인 버전이 폐쇄되고, 교회 홈페이지에서 바로 <만남>을 찾아들어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온라인 서비스 강화에 따라 온라인 구독의 확장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남>을 읽는 행태(종이잡지+온라인)는 매달 본다는 답이 67%, 가끔 본다는 답이 33%였습니다.

현재 발행되는 종이잡지를 어떻게 받을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교회에서 직접 받겠다(74%)는 답이 대부분이었으며, 구역장을 통해 받겠다(7%)는 답은 소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온라인 버전을 선호한다(19%)는 답도 적지 않았습니다.

<만남>을 읽는 방식



<만남>을 이렇게 받았으면...



설문조사 응답자 10분께 선물 전합니다

김미열 은퇴권사(인천교구), **김점숙** 권사(서대문·은평교구), 정윤선 성도(고양·파주교구), 최성민 집사(동대문·종량교구), **이훈희** 집사(노원교구), 조환영 집사(서초교구), 문혜선 권사(서대문·은평교구), **이재학** 안수집사(동대문·종량교구), 박수연 집사(마포·영등포교구), **박지현** 집사(서초교구)

말씀, 신앙생활, 소그룹... 맞춤형 콘텐츠 기대하세요

<만남>에서 성도들이 현재 즐겨 읽는 섹션과 함께, 향후 <만남>을 통해 읽고 싶어하는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만남>은 성도들의 관심사와 요구사항을 더욱 잘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만남> 이렇게 만들어 달라

말씀과 이슈

위임목사님 말씀

교역자 인터뷰/교역자 간증 **NEW**

성서지리 - 성경역사 순으로-주변국가 지명 포함 **NEW**

성경이야기 - 차세대를 위한 **NEW**

기도문 따라 읽으며 묵상하기 **NEW**

이슈 - 이단, 이웃교회

소식

월별 교회소식

부서 역사/소식 **NEW**

부서원 모집 **NEW**

부서별 사역소개 **NEW**

교회내 소그룹 **NEW**

동호회 소그룹 - 미술, 스포츠 **NEW**

세대별 소그룹 **NEW**



차세대

차세대 카페

젊은이 동향과 경향

양육관련

교회학교 비전과 친교 **NEW**

성경퀴즈, 성경인물 탐구 **NEW**

가족 퀴즈 **NEW**

땅끝까지 이르러

북한선교

해외선교

문화선교

전도사례 - 전도지로 사용 **NEW**

선교사 일대기 **NEW**

선교사 열방소식 **NEW**

영락 올타리

새신자 간증

청년 간증

교사 간증 **NEW**

전세대 간증 - 오이코스 병행 **NEW**

기독교 문화/상식 **NEW**

건강정보

간결·스마트한 지면… SNS로도 만나세요

<만남>의 미래방향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남>은 앞으로 '간결하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성도님들에게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채널 병용'으로 더욱 활발한 교류와 소통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여 강화'를 통해 성도님들이 <만남>에 더 적극적으로 기고하고 참여하며,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간결하고 핵심적으로 (Simple & Brief)

- 쉬어가는 페이지 : 글 분량 줄여 간결하게
- 시원한 지면 : 한 눈에 보기 쉬운 디자인
- 다양한 카테고리 : 형식 타파 다양한 이야기
- 발행주기 다양화 : 월간이 아니어도 좋음
- 재미 한 스펤 : 가로/세로 성경퀴즈 추가

온라인 채널 강화 (Smart)

- 온라인 버전 : 젊은 세대를 위한 온라인 '만남' 제작
- 단톡방 : 전달 흥보에 SNS 적극 활용
- 온오프 이원화 : 신속·편안하게 정보 접근성 확보
- QR코드 홍보 : 홍보선물에 QR 코드 삽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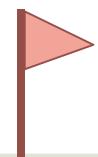
참여 확대 (Participatory)

- 기고 홍보 : 이메일 주소 및 기고 방법 안내
- 새신자 이야기 : 새로운 성도들의 경험 공유
- 성도 Q&A : 성도들의 궁금증 해결 코너
- 세대별 토크/인터뷰 : 다양한 세대 간 소통
- 숨은 봉사자 발굴 : 눈에 띄지 않는 봉사자 이야기 소개

우리 <만남>은 참여와 축복의 통로

- 성도들이 들려주는 <만남> 이야기

<만남>은 영락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이야기로 가득 찬 공간입니다. 1973년 2월 창간 이래로, 성도님들의 소중한 사연들이 <만남>에 담겨왔습니다. 성도님들은 <만남>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만남>은 행복 비타민, 참여의 공간, 축복의 통로, 그리고 추억을 회상하는 숲길이었습니다.



<만남>은 행복 비타민

교회를 더 사랑하고 함께하고픈 마음 생겼죠



코로나 팬데믹 동안 큰 도움



'리틀스타' 간증 너무 재밌어



한경직 목사님을 더 잘 알게 돼



교회소식 통해 대화가 풍성해져



시어머님이 <만남>을 항상 챙겨줘



봄 불편할 때 큰 위로가 됨

성도들이 함께 만든 공간

내가 쓴 원고 실린 <만남> 가보로 보관



자원봉사 기자로 시를 기고한 추억 새록



영락화랑에 내 작품 실린 감격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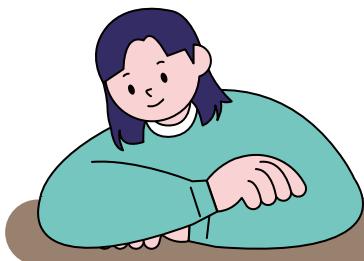
영락교회 역사 만들기에 동참한 느낌



친동생은 두 번, 저는 한 번 기고



네 번의 글 실린 <만남> 자녀에게 물려줄 것



전도와 교제, 그 축복의 통로

전도한 제자의 간증문 너무 흐뭇



<만남>은 주님과 연결 돋는
복음의 다리



구역 식구들과의 교제가 더 풍성해졌죠



전도대상자에게 전하는
작지만 소중한 선물



성도 간의 교제 통로,
더 활성화 되어야



내 기사 실린 <만남>을
전도용으로 드려



뜨거웠던 옛 시절 추억의 숲길

청년들 선교 초기, 옛 열정 떠올라



외국에 사는 친구의 원고를 보고
극적 상봉



30여 년 전 구역장님의 배달 수고 못 잊어



<만남> 전하는 권사님 권면으로
지회장 됐죠

“다음세대와의 소통 통로로 디지털 만남도 강화해 주세요”

<만남> 600호 발간을 맞아 김운성 위임목사님과 홍보출판부 <만남> 편집진이 인터뷰를 가졌다. 홍보출판부 사무실로 직접 찾아오신 목사님은 1시간 반에 걸친 인터뷰 내용 <만남>이 수행하는 소통에 대한 기대와 요구, 우리 교회의 오늘과 미래를 감당할 다음세대에 대해 깊은 관심과 진솔한 사랑을 드러냈다. 홍보출판부 담당 강승훈 목사와 홍보출판부장 김태영 장로, 편집장 권오란 권사, 편집위원 박선이·유승현 집사, 기획위원장 김성문 집사가 함께했다.



“매달 이렇게 교회지를 내는 곳이 많지 않지요? 결호 없이 50년 동안 600호를 낸 것은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밝게 웃으며 사무실에 들어선 목사님은 우선 기도로 만남의 문을 열었다. “한 줄 한 줄 읽어내려 가고 또 배열해 나가고 하는 과정 속에 기쁨을 주시고, 또 구상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에 좋은 열매를 허락하셔서 수고의 보람과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만남>이 600호를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거기에 영락교회 역사가 누적되고, 또 거기서 또 새로운 삽이 돋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남>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소통을 감당하는데 잘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할지 많은 기도 제목 있습니다.

<만남>이 성도들 사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매체 방식은 좀 다양화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종이 잡지에 익숙한 분이 많지만 요즘 젊은 분들은 디지털 기반이 일상이니까 그런 변신도 구상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청년광장’이라는 이름으로 <만남>안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재미있으면서 신앙에 충실한 내용을 발굴할 것인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3040 젊은층의 필요를 알아야 해요. 우리 교회도 3040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는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분 말씀이, 자기 아들이 2023년까지만 영락교회 다니고 옮기겠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아버지 내가 그냥 있을 게요’ 그랬답니다. 23년부터 3040(을 위한) 목사님도 독립적으로 배치하고 그런 변화에서 마음이 움직인 것이예요. 청년들이 말은 안 해도, 본당 예배는 아예 어른들께 양

보하고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조사한 걸 보면, 본당에 안 들어가는 사람의 영적소외감이 크답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관심을 가져주고 언급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관심을 받고 있구나’ 그런 마음들이 생기죠. 올해는 교구 산하에 별도로 3040 모임을 만듭니다. “(지역기반으로) 어른들과 3040이 함께 모이는 게 기존의 교구 개념인데, 지금은 같이 모이는 게 잘 안돼요. 생활 방식도 다르고요.

<만남>은 3040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만남>이 교회 소식이나 정보를 얻는 통로로 되지만, 3040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부산의 어느 교회는 핫한 기사만 따서 젊은 지체들한테 스마트폰으로 보내는데, 반응이 아주 좋다는 거예요. 사실 <만남> 한 권을 주면서 다 읽으라고 하면 아무 것도 안 읽을 거예요. 3040 담당 교역자가 젊은이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은 기사를 매일, 아니면 일주일에 하나씩 메시지와 함께 스마트폰으로 보내주면 훨씬 반응이 있을 거예요.

청년과의 소통 출발은

3040세대 고단하고 매우 불안
교회는 기도, 봉사 요구하기보다
어떤 감동을 줄지부터 고민해야

어엿한 사회인인 청년들
내년부터는 재정도 독립
콩놔라 팔놔라 않고 자율권 줄 것

우리 전도사님이 아침에 뭘 보냈네? 이거 <만남>에 실린
건데 재밌어, 그렇게 공유와 확산이 가능할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 달력이 확 바뀌지 않았습니까? 고등부부터
시작해서 한 50대 정도까지는 폭발적으로 반응이 좋아요. 반
면에 어르신들은 왜 교회 사진이 안 들어갔느냐, 위임 목사님
사진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불만을 말씀하시는데, 확실
히 세대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각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영락교회 콘텐츠를 살리는 일
도 홍보출판부가 해주시고요, 하실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제 꿈은 홍보출판부가 <만남>에서 확대해 좀 더 다양
하게 출판도 하고, 굿즈도 만들면서 업무의 지평을 넓히
는 것입니다. 지금 영락서점이 한 쪽 구석에 있는데, 앞으로 기념관이 리모델링되면 눈에 확띄는 데로 재배치 해서
북카페처럼 성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겁니다.
한경직 목사님 설교 말씀 중 한 구절을 담고, 아래는 여백
인 백지수첩 같은 거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책갈피도
만들고요. 홍보출판부가 그런 재미있는 소통 방식을 많이
개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토요일마다 새벽기도
를 나오는 일로 출석 도장을 찍자고 목사님들이 제안하셔

서 진행중인데요, 다 찍은 분들께 상을 주는 데 그런 우리
교회 콘텐츠로 뭘 만들어서 상품으로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만남>은 지금 종이가 기본 플랫폼이고 e북 형태로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쉽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뿐 아니라 외부 분들도 <만남>을 통해 목사님 말씀이나 우리 교회 정책 방향, 소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열면 바로 <만남>으로 들어갈 수 있게 첫 페이지에 딱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이메일과 SNS로 기사를 보낼 수 있으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교회로부터 신앙 생활의 정보와 <만남>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의 동의를 받는 일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동의받으면 훨씬 빨리 할 수있지요.

웹진 <만남> 온라인 구독을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회와 성도가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e처치(Church)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e처치는 실제 교회 공간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나안 성도'들, 즉 '(교회에)안 나가 성도'들 이슈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전 가톨릭 쪽 조사에서 개신교 성도들의 교회 현장 예배 출석률이 훨씬 높다는 결과가 있었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아직 옛날만 못 하거든요. 우리 교회도 코로나19 끝난 뒤 대면 예배 오시는 성도들이 회복되고 있는데, 아직도 최소 2천 500명에서 3천 명이 안 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온라인 사역의 경험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예배당에 한자리에 모이는 예배와 다르다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e처치라는 것을 말하자면, 디지털교회를 하나 더 갖는 거죠. 기존 교회에 더해 빈 공간을 채워나간다고 할까요? 사실, 간절히 믿고싶은데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 형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디지털처치에 등록하도록 하는 거예요. 디지털처치 목사님은 디지털 상에서 구역을 조직하고 심방도 디지털 심방을 다니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을 방지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돌봐야 하는 거죠. 실제로 청년부 같은데도 교회 안 나오는, 아니면 못 나오는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도 다양한 온라인 경로로 풍성한 영적소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단과 맞서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프라인 처치가 메인이지만, 시대 변화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응답한다는 긍정적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지요.

목사님께서는 지금 우리 교회가 3040과 소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먼저, 지금의 3040이 이들의 부모 세대 때 3040과 많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우선 생활

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취직이 어렵고 결혼에 굉장히 딜레마가 있습니다. 결혼까지 잘 한 분들은 육아 스트레스가 너무 크고요. 청년들에게 신앙지도를 하는 방향도 이들 스스로 감동받게 하는 것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감동받을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방황하는 애들에게 “이놈아, 기도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애들이 원하는 답은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청년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 열심히 해라” 이런 신앙지도 보다, 이들이 교회에서 감동받았다는 경험을 갖게 해주면 좋겠어요. 교회에 오면 삶에 대한 영감도 얻고 위로도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그런 것을 제공해줘야합니다. <만남>도 그런 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남>이 청년들의 활동상을 담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청년 사역을 어떻게 새롭게 할 계획이신지요.



세대 관통하는 콘텐츠 만들자

북카페 리모델링해 확대

한경직 굿즈도 제작

우리 교회 콘텐츠 개발하면

성도들 소속감 높아지고

선교에도 큰 도움 기대

홍보출판부 역할 커질 것

우리가 청년부를 어떻게 봐야할지 아주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부에 계신 분들은 아이들이 아닙니다. 바깥에 나가면 벤처사장도 있고 어엿한 사회인으로 활동하는데, 영락교회만 오면 교육부에 소속되어 그냥 교육의 대상으로 취급당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역량들인데도요. 그래서 청년부를 그냥 교육부에서 빼내가지고 독립시켜주자, 그래서 자발적으로 신앙 생활하도록 하고 교회는 교역자를 보내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자는 것입니다. 독립을 시킨다는 건 간섭을 안 한다는 것이지, 그냥 내버려둔다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교역자도 있고부장 장로님도 계셔요. 다만 이제 어른인 청년들한테 콩 놔라 팥 놔라 할 필요가없고, 뒤에서 지켜봐주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을 독립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사례인데요, 자기들이 십일조 내는 거 다 알아서 사용하라 그러니까 십일조 현금이 확 늘었어요. 돈도 더 아껴서 쓰고 재정이 늘고, 자신들이 필요로 느끼는 일을 자율적으로하니까 엄청나게 부흥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도 좀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작년에 준비 단계를 거쳐 내년부터는 완전히 재정 독립을 시키려

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가 지난주에도 뭐 거진 400명이 나왔는데 왜 못 하겠습니까. 잘 할 걸로 기대합니다.

매달 <만남> 원고를 받아보면 정말 손 하나 댈 필요 없는 원고가 목사님 글입니다. 참 따뜻하고 쉽게 쓰시면서도 신앙면에서 분명하고 힘있는 글을 주시는데요, 그렇게 글을 쓰시는데 무슨 비결이 있는지요?

제가 여기저기 글을 많이 썼어요. 요새는 국민일보에 계속 보내고, 부산의 어느 신문에 15년 넘게 쓰고 있습니다. 전에는 두란노 <생명의 삶>에 오래 썼고, 목사님들이 보시는 <목회와 신학> 잡지에 매달 A4용지로 30장씩 썼어요. 설교 글은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니까 책상에 앉으면 1시간 반이면 써요. 평소에 차 타고 가면서 머릿속으로 설교준비도 하고 많은 생각을 하지요.

언제나 옆에 놓고 보시는 책이 있으면 귀띔 좀 주세요.

우연히 알게 된 광노순 교수의 책들을 늘 가까이 봅니다. 광 교수는 원래 연세대 물리학과를 나온 물리학도로 나중에 신학을 한 분인데, 물리학을 해서 그런지 성경을 읽는 눈이 좀 독특해요. 문체는 딱딱하지만 그속에 담고있는 함의가 엄청나게 깊어요. 사색의 깊이가 그런 책들을 읽으면 마음이 정말 평안해져요.

이어령 교수의 책도 많이 봅니다. 그분이 별 거 아닌 것 속에서 또 이렇게 뭘 찾아내는데, 그런 안목이 우리가 성경읽을 때 은혜를 발견하는 거랑 참 비슷합니다. 다 아는 구절인데 그 속에서 정말 감칠맛 나는 은혜를 풀어내잖아요.

목사님 건강 저희가 많이 걱정하는데요. 쉼도 있으세요?

쉬실 때 뭐하세요?

많이 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뭐 쉴 때가 있죠. 저는 좋은 책이 쉼이 되는 것 같아요. 전에는 테니스를 많이 했는데 부산 가니까 코트가 없더라고요. 또 테니스는 같이 할 사람이 있어야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산에 많이 다녔어요. 요새는 남산에 가끔 갑니다.

요즘 기독교와 관련한 사회적 이슈가 많습니다. 사학법도 있고 차별금지법이라는 제목으로 포장된 동성애 이슈도 있습니다. 그동안 <만남>이 다룬는데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정치적 이슈는 교회 안에서 다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성서적 가치와 위배되는 문제나 신앙적으로 장려해야되는 이슈들은 당연히 다뤄야되겠죠. 예컨대 동성애 문제를 다룬다면,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식으로 글을 쓰면 너무 진부하지요. 동성애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의 현실을 알려준다든지,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사학법 같은 이슈는 당장 우리가 할 말이 많습니다. 연초에 한덕수 총리께서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저출산대책위원회 고위 인사들과 우리 교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방문했어요. 원래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안 때문에 오신 거 같은데, 저는 사학법 얘기를 1시간 넘게 말했어요. 현재의 사학 지원에 대해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나라에서 학교를 지원해주는데 그 자체가 잘 못된 거다. 공부하는 학생을 지원해야 한다. 부모가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수혜자가 학교라는 기관이 아니라 공부하는 학생이 되어야죠. 학생에게 교육에 필요한 돈을 주고, 외국어교육을 잘 시키는 학교냐, 스포츠를 잘 가르치는 학교냐, 학생이 선택해서 가도록 하는 겁니다.



김운성 목사 부부의 '쉼' 표지속 사모와 산책에 나선 김운성 위임목사. 바쁜 일과 속 모처럼 쉼을 갖는다.

건학 이념을 지키면서 교육 수준을 높이면, 그런 교육을 원하는 학생이 많이 올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학법하고 무슨 상관이냐면, ‘나는 기독교학교에서 배우고 싶어요, 예배드리면서 영어, 수학 공부하고 싶어요’ 그런 학생을 위해 정말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말이죠. 건학 이념을 살리면서 더 좋은 아이들을 기르려고 더 노력하고요. 나라가 학생을 지원하면, 학교가 긴장하는 거예요. 학교가 노력을 안 하면 애들이 안 오고 문을 닫게 되니까. 근데 지금은 돈을 학교에 주니까, 학교는 가만히 있어도 돈이 오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합니다. 학교가 경쟁을 하고 선생님들이 연구를 해야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그냥 배정되니까 경쟁은 오로지 애들이 하는 거예요. 학교 갔다와서 또 학원가고 과외하고, 나라

디지털 <만남> 적극 도울 것

매일, 매주 재미있는 기사

SNS, 이메일로 전달

교회 홈페이지 첫 장서 바로 들어가게

사학법 개정, 동성애 문제 등

성서에 반하는 여러 논쟁적 이슈

만남이 올바른 방향 제시해 줘야

입장에서는 학교에 돈을 주니까 무슨 비리가 없나 계속 감사하면서 점점 자율성이 없어집니다. 학생에게 돈을 주면 학교는 자율화됩니다. 이런 주제를 『만남』에서 다루어 주세요.

요즘 주보에 새로 온 성도들 이름이 실립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라고 그런 일을 잘 안했는데, 매주 새 성도들 이름도 나오고 숫자도 나오고 하니 많은 도전이 된다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예수 처음 믿은 분들 간증도 만남에서 많이 다뤄주세요. 그런 간증은 늘 도전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성도

입장에서는 어려운 조건도 많아요. 고독한 교인이 많아요. 실제로, 지방에서 건축 사업을 하던 아주 충성된 장로님이 계셨어요. 공장이 멀리 있어서 다니기 힘드니까 가족 전체가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온지가 한 3~4년 됐는데 교회에서는 아무 하실 일이 없어요. 그냥 주일예배만 드리고 가시는거예요. 저러다 주저앉겠다 싶어서 제가 한 장로님을 연결해드려서 이제 교우 관계가 생겼어요. 많은 분들께 영락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교회예요. 누가 오라고 부르는데도 없고, 찬양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잘 모르고, 섬기고 싶어도 길을 모르죠.

교회 안에서도 외로운 신자들, 일상과 신앙 생활 모두에서 약한 고리인 3040, 디지털 플랫폼으로 연결된 성도들은 현재 한국 교회의 중요한 현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운성 목사님과의 인터뷰는 『만남』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소통의 공간으로 역할해야 함을 확인시켜 주었다. **만남**

진행 박선이 집사 촬영 유승현 집사



〈만남〉이 걸어온 길

1960~1964년
<면려> 창간
발행인 한경직
주관 장년면려회



1965~1969년
<영락월보> 창간

영락
YOUNG NAK
'69 3

1969~1974년
<영락> 제호변경

1호



1973년 2월 <만남> 창간

1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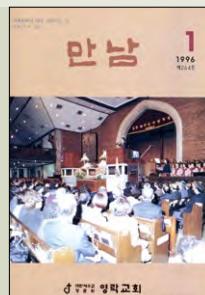
1974년 4월
4x6판 8면 발행

7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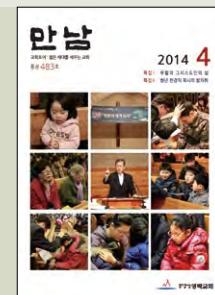
1980년 1월
표지 컬러 인쇄

264호



1996년 1월
<만남> 제호 로고 변경

283호



2014년 4월
전면 컬러 인쇄

만남 '산증인' 2人에게 듣는다

지난 50년 간 영락교회와 하나님의 역사를 담은 기록, <만남>이 600호 발행을 맞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다. 잘 알려진 아나운서 출신 차인태 은퇴장로는 홍보출판부장으로 있으면서 <만남>의 소통 역할을

소통 잘 해온 <만남>, 필진 발굴 더 중요해져

- 차인태 은퇴장로



2000~2001년 홍보출판부 차장,
2006년 홍보출판부 부장
전) MBC 아나운서,
제주 MBC 사장, 경기대 교수,
한국아나운서클럽 회장

<만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교인들 사이의 교제를 돋고 선교 사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읽히는 <만남>을 만들 수 있을까요?

글이 딱딱하면 재미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필진 발굴입니다. 때로는 사진 한 장이 글보다 더 강한 인상을 줄 수도 있어요. 기억하세요? 작년 특별새벽기도회 때 고등부 학생들이 친양을 맡으며 들고나온 플래카드 사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미래의 영락교회 장로 권사 집사 드림', 교인들에게 큰 웃음을 주었죠. 실제로 임팩트도 컼고요. 이런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사진 한 컷, 한 줄 카피.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는 무엇인가요?

한경직 목사님 아드님인 한혜원 목사님의 인터뷰 '아버지 한경직'(2012년 10월호)이 인상적이었어요. 목회자 한경직에 대한 글은 많지만 아버지 한경직에 대한 글은 처음이었습니다.

<만남>의 역할과 앞으로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소통을 위해 세대간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해요. 젊은 세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SNS 같은 새로운 방법이 절실히요. 이것이 교회에 다음 세대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과제라고 봐요. **만남**

강화했고, 김윤곤 은퇴안수집사는 조선일보 국제부장이자 논설위원으로 활동한 언론인으로 수년간 편집장으로 섬기며 월간지 <만남>의 틀을 잡고 기초를 다졌다.

취재 인 미 기자



말씀을 신앙생활로 이어주는 통로 자부심 커

- 김윤곤 은퇴안수집사



2004~2005년 홍보출판부 차장
전) 조선일보 국제부장,
도쿄 특파원, 논설위원

<만남>이란 제호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른 교회 월간지를 보니 보통은 교회 이름을 쓰는데, 우리는 <만남>이예요. 그 이름 자체가 특별하지요. 우리 교회 위임목사님의 메시지는 본질적이지만 그래서 강력합니다. <만남>은 이런 최고의 메시지를 신앙 생활로 연결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만남>이 추구해야 할 편집 방향은 무엇일까요?

통일과 같은 무거운 주제나 사회적 이슈는 조심스럽습니다. '내 믿음을 키워준 영락교회', '선교사님들의 편지' 같은 내용들이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이런 내용은 영락교회와 신앙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교회와 일상생활에서의 소통을 돋지요.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는 무엇인가요?

2006년 6월호에 실린 김창화 집사 기사가 기억납니다. 6.25 때 서울사대부고 교사였던 김 집 사의 순교 사실은 잘 몰랐던 일인데요. 차인태 장로님이 홍보출판부 부장이셨던 당시 차장 박재칠 안수집사가 김창화 집사의 순교 흔적을 찾아 기사로 실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영락동산에 순교비가 세워졌습니다. 참 의미있는 일이었지요.

600호를 맞는 <만남>의 역할과 앞으로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장강후랑추전랑(長江後浪推前浪)'이라는 말이 있어요. '옛사람은 가고 새로운 사람이 온다'는 의미예요. 다음세대는 앞선 세대보다 더 강하고 우수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역사가 발전하는 겁니다. <만남>도 마찬가지로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더욱 기대가 됩니다. **만남**

<만남> 소장자대회 수상자 인터뷰

1973년 2월 창간호를 낸 <만남>을 한 권 한 권 모아온 성도들이 계십니다.
<만남> 600호 기념 설문조사를 하며 오래 전 <만남> 소장자를 공모한
결과, 1982년부터 지난 24년 1월호까지 한 권도 빠짐없이 모아온 김미열

권찰 되고난 후 일 잘하려 교회서 나오는 모든 자료 모아



◀ 김미열 은퇴권사 _ 인천교구



1982년부터 <만남>을 모으셨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 처음 권찰 직분을 받았는데, ‘교회 일을 제대로 하려면 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책자(<요람>, <만남> 그 외 모든 것들)를 열심히 보고 공부하자’고 생각했어요. 1982년 5월부터 2024년도 1월호까지 <만남>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모았어요. 이사 다닐 때도 모두 갖고 다녔어요. 아이들이 다 떠나 집을 줄여 이사하면서도 다짜들고 와서 아이들이 웃더군요.

<만남>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코너가 있는지요?

우리 또래 권사님들 사이에서 <만남>은 인기가 많답니다. 굉장히 보고싶어하고 늦어지면 놓쳤다고 속상해하기도 하더라고요. 만남은 모두 읽지만 특히 퀴즈가 재미

있었죠. 답을 풀어 써내면 선물을 주곤 했어요. ‘치매 예방에 좋대’하면서 재미있게 풀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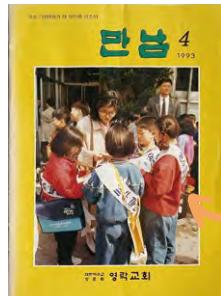
<만남>을 통해 여러 번 만남을 가지셨다고요.

아주 어려서 부산으로 피란을 갔다가 중학교 때까지 살았어요. 그때 부산영락교회 다니고,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 영락교회 다닌 이야기를 만남에 썼는데, 이 글을 읽은 새가족부 젊은 봉사자가 연락을 해왔어요. 자기 시어머니가 예전에 부산영락교회 유년주일학교를 저랑 함께 다녔다는 거예요. 덕분에 수십 년만에 어릴 때 친구를 만났어요. 또 어린 시절 교회 친구들이 호주로 이민을 가는 등 다 흩어졌는데, <만남>에 올린 제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글을 보고, ‘유년주일학교 친구모임’을 만들어 귀국할 때마다 만나고 있어요. **만남**

은퇴권사(인천교구) 및 <만남> 표지에 9년 차이를 두고 등장한 피점숙
권사(서대문·은평교구)와 정윤선 성도(고양·파주교구) 모녀가 가장 오
래된 <만남> 소장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두 권의 <만남> 표지모델이 우리 부부와 딸이랍니다



◀ 피점숙 권사 _ 서대문·은평교구, 정윤선 성도 _ 고양·파주교구

1984년 1월호 <만남> 소장자와 1993년 4월호 소장자가
모녀 사이라니 놀랍습니다. 이 두 권의 <만남>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984년 1월호 <만남> 표지 사진에 우리 부부(남편 정
상열 은퇴집사, 아내 피점숙 권사)가 나왔는데, 1993년
4월호 표지에는 첫째 딸(정윤선 성도)이 나왔어요. 역
사적인 기념물이라고 간직했는데 이런 영광이 있네요.
1984년 표지 사진은 청년부부성경부가 새로 생겨서
개강 예배를 드리는 사진이예요. 저희 부부가 나란히
앉아 간식 먹고 있는 모습이 찍혔어요! 부부성경부에
서 정 집사는 총대(대표)를 했고 저는 꽃꽂이 봉사를
했어요. 함께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정말 즐
거웠어요. 10년 넘도록 봉사했지요.

1993년 표지에는 부활절 남산 전도를 나가기 전 딸아
이가 선생님께 설명 듣고 있는 모습이 담겼어요. 옆 모
습이라 얼굴이 자세히 보이지도 않지만 저희 부부 눈
에는 정말 예쁘고 뿌듯해서 잘 간직하고 있었어요.

<만남> 잘 보고 계십니까?

김운성 목사님이 쓰시는 이달의 말씀 코너는 꼭꼭 챙
겨보고 있어요. <만남>에 교회와 일상 생활 정보나 교
양, 문화 관련 코너도 있으면 좋겠어요. **만남**

美 알버커키서 날아온 축하 메시지

15년 독자…6·25 때 영락교회 학생 교인
<만남>은 우리 신앙잡지 편집 모델



이경화 장로
알버커키 한인 감리교회
Voice.kumcabq.com

<만남> 600호 발간에 응원과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저는 미국 뉴멕시코 알버커키라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6·25전쟁 당시 영락 교회 학생 교인이었는데, 한경직 목사님께서 1929년 이곳 폐결핵 요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를 입수하여, 2009년 이를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에 보내드린 일이 계기가 되어 <만남>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만남>이 해를 거듭할수록 내용과 편집이 좋아지고, 김운성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위시하여 성도님들의 좋은 글이 풍성해지는 것을 부러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뉴멕시코 한인을 위하여 알버커키 한인 감리교회 출판부에서 발행하는 <광야의 소리> 격·월간지를 편집하고 있습니다. <만남>은 저희 격·월간지 편집의 모델이 되어 왔습니다. <만남>에 실린 글 중에서 여러 편의 글을 <만남>편집부와 집필자 허락을 얻어서 <광야의 소리>에도 실었습니다. 성도님께서 쓰신 좋은 글이 먼 이곳 미국 뉴멕시코주에 있는 한인들에게도 큰 도움을 주고 있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편집부 여러분의 봉사가 피곤치 않고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듯 <만남>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만남**

<만남> 원고 모집

성도님들 삶과 신앙의 진솔한 목소리들을 기다립니다. 새가족과 청년들의 생생한 간증, 전도 사례, 세대간의 소통, 성도들의 오이코스 이야기 등을 홍보출판부로 보내주세요.

문의 홍보출판부 ☎ 02)2280-0197~8 이메일 youngnak-hb@daum.net



다음세대



청년광장 # 디키타가

26 대학부 겨울수련회 29 청년부 성경부서 리더들의 2024 비전

유쾌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다음세대’ 코너가 새로워집니다.

좀 더 짊어진 문제와 생동감 있는 지면구성으로

다음세대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What's Next, PAPA?



주님의 마음 있는 곳이
우리의 종착지입니다

대학부(부장 김종태 장로)는 1월 19일(금)부터 21일(주일)까지 영락기도원에서 '기도(로마서 8:15)'를 주제로 겨울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주강사로 참여하신 송준기 목사(웨이처치 대표)님은 양일간에 걸친 집회설교를 통해 대학부 벗님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임을 역설했고 기도를 주제로 한 대학부 교역자, 지도위원들의 특강은 벗님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뜨겁게! 뜨겁게!...찬양·기도

방덕종 목사의 인도로 대학부 벗님들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뜨겁게 기도



01



맛있는 간식

지도위원들이
간식을 준비하고
학생회 프로그램과
함께한 시간

02



두근두근 포크댄스

둘째 날 저녁 집회가
끝난 뒤 대학부 벗님 모두가
포크댄스 프로그램으로
함께 보낸 즐거운 시간

03



거룩한 성찬

닫는 예배이자
주일 예배에서
부서 성찬을 진행

04



다 함께 '찰칵' 대학부 학생회 및 사역팀의 사진

05

'중보기도' 기쁨을 알았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15)

대학부 겨울수련회 이름은 'What's next, Papa? 다음은 뭐예요, 아빠?'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빠'라고 부르면 가까이 계시며 만나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해줬어요.

주제는 '기도'였어요. 저는 수련회 준비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그리고 청년 시기에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그리고 청년 시기에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처음 만나거나 얼굴만 아는 벗님들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섬기게 하셨어요. '은주'를 조장으로 만나 서로를 돋고, 수련회 기간 동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28)

마지막 날에는 기도원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며 마무리했어요. 방덕종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물길이 잘 뚫려야 물이 잘 흐르듯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통로로 사용되는 사람에게 기름 부으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나니, 중보기도의 기쁨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앞으로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해요. 지치지 않는 힘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교회, 일터, 가정에서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될 것을 확신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조보경
대학부 에스더마을



〈광야소리〉 지기 남기두



〈광야소리〉 부지기 이예건



〈꿈꾸는땅〉 지기 김상경



〈꿈꾸는땅〉 부지기 임수한



성경부서 청년 리더들 “한 뼘 더 성장할 것”

광야소리, 꿈꾸는땅, 모리아, 주는나무.
조금은 생소한 이름들이죠.
이번 기회에 기억해두시고 기도해주세요.
영락 청년부의 성경부서들입니다.
한 공동체를 이루며 말씀과 교제 속에 성장해가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모리아〉 지기
박선삼



〈모리아〉 부지기
장윤미



〈주는나무〉 지기 이원석



〈주는나무〉 부지기 김선용

광야소리

주일 오후 3시 | 50주년기념관 401-2호

삶의 광야에서
응답하시는
주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광야소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를 곳이에요. 삶은 때로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계속 유지되어,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느끼고 큰 힘을 얻길 소망합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 광야소리 청년들에게 사랑과 관심, 그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꿈꾸는땅

주일 오후 3시 | 50주년기념관 403~5호

꿈꾸는 땅에
뿌려진 씨앗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꿈꾸는땅에 새출발이라는 사랑의 씨앗을 뿌렸어요. 모두의 헌신과 도움으로 준비되었지요. 열매는 오직 주님만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을 기대하면서. 성령의 바람을 맞으며, 우리는 꿈꾸는땅에서 2024년을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길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모리아

주일 오후 3시 | 50주년기념관 302호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후회 없도록…



‘AWAKE MORIAH’는 신앙, 영적 사랑, 삶을 기도를 중요시하는 공동체입니다. 실패보다 두려운 것은 후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에서 순종했듯이, 우리도 순종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24년도 말씀 카드’를 배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모리아와 청년부는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주는나무

주일 오후 3시 | 50주년기념관 301호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
순종과 섬김으로
더 성장하려 합니다



주는나무는 작년 크게 성장해 80명 넘는 청년들이 함께 모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정이 가득한 새 신자들이 많이 찾았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많은 분의 기도와 헌신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기도, 훈련을 통해 빛과 소금처럼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올해는 ‘순종과 섬김’으로 더 성장하려 합니다. 성도님들의 응원과 기도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필리핀 안티폴로 지역에 복음의 씨앗 뿌리다

Philippines Antipolo



↑ 마야가이마을에서 Sunshine Church 워십팀 아이들과
조두형 목사님

← 마야가이마을에서 따갈로그아로 찬양하는 비전트립팀

✓ 삼바빌마을 가정 심방시 성도님들 찬양하는 모습



조원형 안수집사
중구·용산교구
영락선교훈련학교 팀장



영락선교훈련학교
비전트립 다녀와
지난해 12월 7~12일
은혜의 선교 여정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영락선교훈련학교에 대해 알고 계시는가요? 이 학교는 선교의 기초부터 심화 과정까지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선교사관 학교입니다. 특별한 프로그램 중 하나는 '비전트립'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선교 현장을 직접 경험합니다. 최근에 비전트립팀은 필리핀 안티풀로(Antipolo)에 있는 김우람 선교사의 사역지를 다녀왔습니다. 4박 6일간의 여정에서 16명의 팀원은 선교사님을 도와 땀과 눈물, 그리고 은혜로 가득 찬 선교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안티풀로에서 첫날 아침, 팀원들은 오후 사역을 위해 닭죽 만들기, 풍선 왕관 만들기, 간식 포장, 팝콘 튀기기 등을 했습니다. 이후 마아가이 마을 광장에서 200여 명의 아이를 만났는데, 준비한 100명 분량의 선물과 음식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왔습니다. 어떤 아이는 줄을 두 번 서서 집에 있는 동생 선물까지 쟁였고, 어떤 아이는 닭죽을 집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은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 하늘의 꿈을 꾸며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둘째 날 오전에는 Sunshine Church의 나이 많은 성도님들이 사는 삼바빌 마을을 방문했는데, 작은방에서 춤추며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마아가이 마을에 다시 방문해 필리핀 현지어로 찬양하고 율동했을 때는 아이들이 무척 즐거워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주일을 맞아 두 곳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오전에는 Sunshine Church에서 70여 명의 성도와 함께 뜨거운 찬양 예배를 드렸고, 오후에는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마이닛 마을에서 아직 완공되지 않은 두 번째 예배당을 위해 기도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번 선교 여정을 통해 만난 안티풀로 주민들에 게 있어서 Sunshine Church는 놀이터, 꿈을 키우는 공작소, 예배하는 성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만난 아이들이 복음의 전령자로 성장해 필리핀 복음화에 기여하기를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비전트립 팀원들은 선교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돌아왔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날

전도, 하나님 일하심이 거기에…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영혼과 만나는 기쁨

전도는
기쁜 여행입니다.

2023년 2월, 능력과 재정적으로 실력도 재정도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게 해주셔서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무언가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도전적인 일로 전도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전도가 제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생각에서 벗어났어요. 특히 아버지를 이어 남동생이 장교로 복무 중인 경기도 연천의 군부대를 방문했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병사 네 명과 대화하며 복음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전도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했지만, 비난을 받더라도 몇몇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불교 신자로 돌아가신 분을 못 빌까 염려되어 교회에 갈 수 없다는 유 상무님, 무당집을 다니던 이부장님, 바빠서 교회에 가기 싫다던 최반장님에게 복음을 제시한 결과, 두 분이 결신하셨습니다. 전도는 뾰족한 방법이 아닌, 뭉툭한 방법이라고 했던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처음에는 노방전도를 할 때 지인을 만날까 두려웠지만, 그런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귀한 영혼을 만나는 것이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배우고 훈련한 대로 믿음과 전도의 범위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진희 집사
중구·용산교구

주원 안 믿는 이들에 결신의 은혜 허락

전도훈련 받은대로 전하고 싶어요



장수연 권사
노원교구

작년에 가족과 겪은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서 전도폭발에 참여하였습니다. 노방전도보다는 친구, 이웃,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전도폭발을 통해 배운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조카에게 전도할 때, 조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되어 놀랐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전도훈련을 받게 하신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탑골공원에서의 팀 전도활동을 통해 전도 방법을 배우고, 직접 복음을 제시하여 결신기도를 이끌어내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복음 제시는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전도폭발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 있게 하나님을 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만남**

2024년 상반기 전도 훈련 학교		
반 명	토요반	화요반
	팀장 김옥녀 권사 010-7492-0624	팀장 전경숙 집사 010-3354-3835
신청방법	영락교회 홈페이지. 주보 광고. QR코드 베다니광장 부스. 전도부 사무실 (기념관 607호)	
신청기간	상반기 41기 (2024.2.18.~ 25까지) 하반기 42기 (2024.8.18.~ 25까지)	상반기 17기 (2024.2.18.~ 25까지) 하반기 18기 (2024.8.18.~ 25까지)
교육기간	상반기 2024.3.9. ~ 6.1. (13주 과정) 하반기 2024.9.7. ~ 12.7. (13주 과정)	상반기 2024.3.5. ~ 5.28. (13주 과정) 하반기 2024.9.3. ~ 12.3. (13주 과정)
교육장소	봉사관 (지하 예배실/103, 301, 501, 505)	기념관 (4층/7층 701, 702, 703, 704)
교육시간	오후 2시 ~ 4시	오전 10시 20분 ~ 12시 30분



사랑받고 사랑하는 특별한 사랑부

‘믿음의 자립’

힘껏 돋겠습니다



사랑부 섬기며 제가 더 은혜 받았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이 영락교회 성도님들께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3년부터 사랑부에서 많은 학생과 교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은 사랑부 25주년을 기념하는 해였기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사랑부 목사로 섬기게 되면서 사랑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뜻을 어떻게 전하고 함께 누려야 할지 많은 기도와 고민을 했지만, 막상 사랑부에 부임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가 더 많이 받았습니다.

졸업 없는 사랑부… 순수 열정 그 자체

사랑부는 정말 특별한 부서입니다. 먼저, 사랑부는 졸업이 없는 유일한 교회학교 부서로서, 가장 오래 있는 학생은 26년째 사랑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서인지 선생님들께서도 사랑부에 한번 오시면 쉽게 떠나지 못하시는 듯합니다. 학생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얻는 은혜는 다른 어떤 은혜보다 귀하기 때문이죠. 작년 여름성경학교에서 경험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랑부 학생들의 모습은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 순수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기 위해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찬양과 기도에 열중하는 모습이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사랑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찬욱 목사
사랑부



8세부터 은퇴 앞둔 학생까지 온세대 함께

사랑부가 특별한 두 번째 이유는 모든 연령이 함께 하는 부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랑부에는 8세 학생부터 은퇴를 앞둔 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두 각자의 개성과 성품을 가진 학생들이죠. 그래서 다툼과 갈등이 종종 있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예배 시간이 되면 최대한 집중하고 사랑부 안에서 즐겁게 활동하며 세대를 아우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난 25주년 연극을 준비하면서도 나이 차가 많은 학생끼리도 서로 돋고 협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랑부의 모습에 연극도 성황리에 마치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생님들의 헌신,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많이 있는 사랑부가 특별한 세 번째 이유는 섬기시는 선생님들의 헌신이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회학교 부서의 선생님들도 각자의 시간과 열정을 다해 학생들을 섬기시지만 사랑부 선생님들의 섬김은 차원이 다릅니다. 저도 교역자가 되기 전 7년여 시간을 교회학교 교사로 섬겼지만 사랑부 학생을 섬기는 일은 더 많은 관심과 섬김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사랑부 안의 여러 일정과 활동들로 인해 이동할 때나, 식사할 때도 더 세심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갑작스

러운 환경 변화에 민감한 학생들이 안정감을 느끼도록 한 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아야 하며, 때로는 온 힘을 다해 감정을 표출하는 학생들을 어르고 달래기도 해야 하죠. 외부 활동에 불안을 느껴 감정적으로 예민해지는 학생들, 잠을 못 이루는 학생들까지 선생님들은 사랑의 눈으로 자녀들을 돌보듯 그들을 섬겨주십니다. 때로는 학생들로 인해, 여러 상황과 환경들로 인해 지치고 괴로워하실 때도 있지만 순수하고 사랑이 넘치는 학생들을 보며 받는 은혜와 위로로 또다시 섬기시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교역자로서도 많이 배우고 느끼는 지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사랑부는 사랑받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성장시켜야죠

이제 사랑부는 <위풍당당, 믿음으로 올라가는 사랑부(사사기 1:1-2)>라는 주제로 2024년을 보내려고 합니다. 어떤 시설이든, 교육기관이든, 최종 목표는 학생들의 성장입니다. 교회학교 역시 부서의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경험하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교육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죠. 특별히 사랑부는 ‘믿음의 자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0년이 다 되도록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아직 스스로 말씀 읽기, 스스로 기도하기, 스스로 예배드리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올 한 해는 학생들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독려할 예정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예배당에서 사랑부 학생이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 안에서 활동할 때에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발달장애인들이 사랑부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팎에서도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날**

2024년 성탄절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사라져가는 성탄절

많은 사람에게 성탄절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크리스마스트리 장식, 찬양, 연극, 산타할아버지, 성탄 카드 교환, 국군장병들에게 위문품을 보내는 일 등이 그 추억에 속합니다. 특히 성탄절 전야에 교회에서 떡국을 먹고 집집마다 다니며 새벽 찬송을 부르던 일은 잊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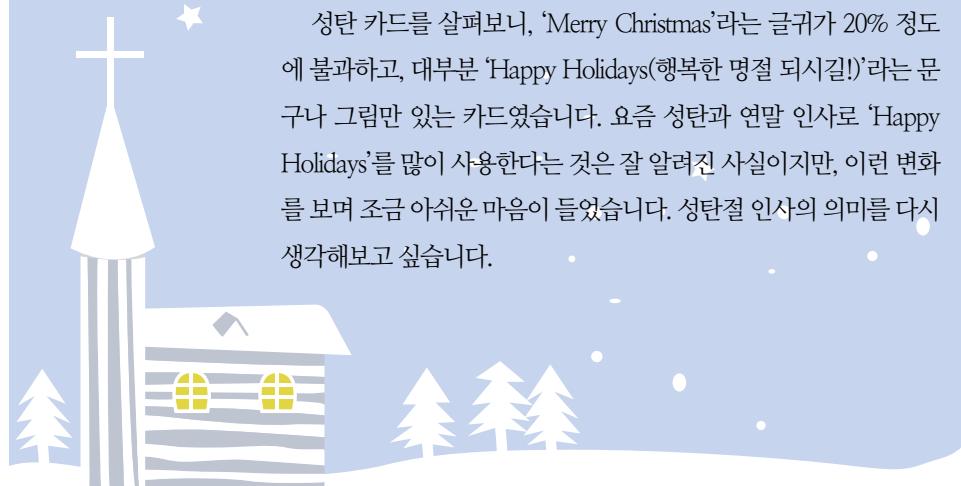
80%가 “해피 홀리데이” … 공휴일로 소비

하지만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성탄절의 생각과 문화도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너무나 당연했던 ‘Merry Christmas’ 인사가 점점 드물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에 작년 성탄절을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오랜만에 종이로 된 크리스마스 카드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먼저 카드를 구매하고 친척과 휴대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 가정이나 병원에서 투병 중인 분들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쓰다 보니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탄 카드를 살펴보니, ‘Merry Christmas’라는 글귀가 20%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 ‘Happy Holidays(행복한 명절 되시길!)’라는 문구나 그림만 있는 카드였습니다. 요즘 성탄과 연말 인사로 ‘Happy Holidays’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런 변화를 보면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탄절 인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홍권옥 은퇴권사
서초교구
전)영락작곡가회 대장



기독교인에게 크리스마스란…

‘Christmas’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Christ’는 그리스도를, ‘Mass’는 미사(예배)를 의미하며,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여 그리스도에게 예배드리는 날이죠. 하지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Happy Holidays’로 바뀌는 추세가 있습니다. 이 현상은 1970년대부터 미국과 캐나다에서 방송사와 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 ‘Merry Christmas’라는 용어가 사라지지 않고 잘 보전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언어, 장식, 글 등을 통해 이를 더 많이 표현하고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탄찬송 제대로 부른 교회도 많지 않아

12월이 되면서 백화점, 쇼핑몰 카페 등은 크리스마스 장식과 캐럴로 성탄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었습니다. 반면, 많은 교회에서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준비하고, 대림절과 성탄 찬송을 얼마나 부르는지에 대해 여러 교회의 찬송 실태를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의 대형교회 14곳과 중형교회 6곳 등 총 20곳의 교회를 임의로 선정하여, 대강절 4주와 성탄절에 어떤 찬송을 불렀는지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대림절 기간 동안 관련 찬송을 부른 교회는 30% 정도였습니다. 성탄절 찬송의 경우, 대림절 첫째 주에 20%, 둘째 주에 35%, 셋째 주에 45%, 넷째 주(12월 24일)에 95%, 성탄절 당일에는 교회에서 100%의 성탄 찬송을 불렀습니다. 즉, 대부분의 교회는 대림절 넷째 주와 성탄절에만 성탄 찬송을 부르는 것을 나타났다. 대림절 4주 동안 성탄 찬송을 모두 부른 교회는 20%였으며, 한 곳도 부르지 않은 교회도 5%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대림절 넷째 주가 12

월 24일인 주일이었기 때문에 성탄 찬송을 많이 부른 것으로 보이며,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성탄 찬송을 더 적게 부르는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크리스마스엔 성탄찬송 가득하길

모든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음률의 기도입니다. 대림절 기간에는 대림절 찬송을, 성탄절에는 성탄 찬송을 부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가정과 교회에서 대림절 찬송을 열심히 부르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고,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어 성탄절이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영락 교우들은 2024년 성탄절을 기다리며 이웃에게 예수님 탄생의 축하를 어떻게 표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할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작은 선물이나 성탄 카드에도 ‘Merry Christmas!’라는 인사를 새겨 넣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대림절 찬송과 성탄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성탄 찬송을 많이 부를 때, 이 전통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어지고, 이웃과 온 세계에도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성탄 찬송으로 가득 차 평화로워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찬송을 통해 하늘에 영광! 땅에 평화! 



치질, 쉬쉬하다 큰 탈 난다

항문 질환은 성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초기에 제대로 치료받지 않거나 생활습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과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항문질환은 크게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치질	가장 흔한 항문질환으로, 정상 조직이 항문 밖으로 나오는 상태입니다
치루	항문 주위에 염증이 생겨 조직 내에 누관(터널)이 형성되는 진행된 상태입니다
치열	항문 점막이 찢어진 상태로, 만성이 되면 통증 없이 출혈만 발생합니다

치질

보통 ‘치질’이라고 하면 하나의 질환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치질은 항문질환 전체를 아우르는 용어입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치핵’을 의미하는데, ‘치핵’은 항문 내 정맥류와 주변 조직이 돌출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치핵의



정형석 집사
강남교구
의료선교부
외과 전문의

증상으로는 항문의 출혈과 통증, 배변 시 불편함, 가려움증, 항문 주위의 땅어리 등이 있습니다. 치핵은 아래와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도 치핵	항문 내에 존재하며 때때로 출혈이 동반됩니다.
2도 치핵	배변 후 저절로 항문 내로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3도 치핵	배변 후 손으로 넣어야 항문 내로 들어가며, 이 단계에서 대부분 전문병원을 찾습니다
4도 치핵	손으로 넣어도 들어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항문 밖으로 돌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치질의 초기 1~2단계에서는 좌욕, 연고, 식습관 및 생활습관의 개선, 배변 습관 교정 등의 보존적 치료를 합니다. 3단계에서는 보존적 치료 후 수술이 필요할 수 있고, 4단계에서는 반드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치루

항문 주위의 염증이 지속되어 터널 형태의 누관이 생기는 것을 ‘치루’라고 합니다. 원인은 잘못된 생활습관, 외상, 치열, 결핵, 방선균증, 비특이성 장염, 암 등 다양하며, 지속적인 통증, 항문 주변 피부 자극, 고름, 열, 불쾌감,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생활습관 개선으로 증상 완화가 가능하지만, 완전한 자연 치유는 어렵습니다. 증상의 심각도에 따라 약물치료와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열

배변 시 항문관이 찢어져 통증과 출혈이 발생하는 질환을 ‘치열’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변을 보지 못하게 되어 변비가 악화되고, 다시 항문관이 찢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변비, 잦은 설사, 배변 습관 문제, 내 괈약근 경련, 염증 등이 있습니다. 주요 증상은 배변 시 날카로운 통증, 출혈, 변비 등입니다. 통증이 10분에서 20분 이상 지속되면 치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열은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됩니다. 급성 치열은 변비로 인해 항문관이 찢어진 상태로, 약물치료나 온수 쪽욕 등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만성 치열은 반복되는 급성 치열로 인한 감염, 항문궤양, 비추성 유두돌기, 피부 꼬리 등이 발생하며, 이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방법

항문 질환은 방치하면 수술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문질환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변비 예방 : 변비는 항문질환의 주요 원인입니다. 변의를 참거나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는 것은 항문에 압력을 가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변비 예방이 중요합니다.

식습관 개선 : 매운 음식과 짠 음식은 항문 운동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자극을 줍니다. 식물성 섬유소가 풍부한 식품(보리, 현미, 다시마 등)을 섭취하고, 가공식품과 과도한 육류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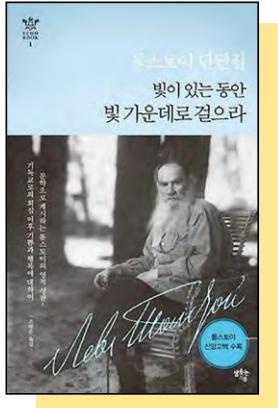
조기 치료가 최선…창피해 할 일 아냐
변비 참지 말고 맵고 짠 음식은 피해야
쪽욕한다면 쪼그려 앉으면 오히려 위험

온수 쪽욕 : 항문 괈약근을 이완시켜 통증을 완화하고, 항문 부위의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즉, 항문 괈약근을 이완하여 근육경련으로 인한 통증을 경감시키고, 항문 부위를 청결히 세정해 혈액순환을 촉진해 항문 부위에 생긴 혈전 용해나 상처 치유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쪼그려 앓는 자세 같은 잘못된 방법을 통해 쪽욕한다면 오히려 항문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질환 부위의 상처가 악화할 수 있습니다.

항문 질환은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으로,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잘못된 정보나 부끄러움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질환은 방치하면 저절로 낫지 않으므로, 증상이 있을 때는 전문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남**

빛이 있는 동안 빛 가운데로 걸으라

톨스토이 지음 / 조병준 번역 / 샘솟는기쁨 펴냄 / 2013년



이 책은 톨스토이가 남긴 단편집으로 여러 가지 짤막한 이야기들을 묶어서 담고 있는 책입니다. 부담 없는 내용으로 재미있게 읽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은 전혀 가볍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톨스토이의 신앙 간증집처럼 평소에 우리가 고민했던 신앙의 실제를 들추어 줍니다. 이 책은 간단한 예화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성공지상주의와 종교를 넘어 신앙의 영역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기에 가볍게 읽어가던 책을 천천히 곱씹어 보고 이후에는 책에 줄을 그어 가면서 고민하며 읽게 되는 유익한 책입니다.

그렇다고 이 책을 마냥 무거운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 책을 처음 접할 때는 톨스토이라는 거장의 책이라 읽기 힘들겠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면서도 명쾌한 예화를 들어 읽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저 또한 이러한 저자의 배려로 재미있게 이 책을 읽어나갔습니다. 다만, 깊이 고민하면서 읽으신다면 재미를 넘어 우리의 신앙과 방향을 고찰할 수 있는 유익한 서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만남**



남경열 목사
성남·분당교구
IT미디어부



영락시어터 2월 상영 영화

(소강당, 주일 오후 2시)

2/11 영화상영 : 설 명절로 상영 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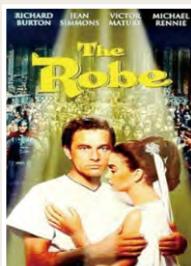
7인의 신부 (Seven Brides For Seven Brothers) ALL 121분

2월 4일

감독 : 스�坦리 도넌

출연 : 가루스 텁블린, 하워드 킬, 제인 피웰

남자 형제만 일곱인 폰티피 집안의 장남 아담과 여관에서 일하는 밀리는 첫눈에 끌려 결혼식을 올린다. 달콤한 결혼 생활을 꿈꾸던 밀리는 아담이 남자 일곱을 위해 일해줄 가정부 같은 여자가 필요했음을 알고 서글픔을 느끼지만, 낙심하지 않고 앙상마 같은 시동생들을 멋쟁이로 만들어 모두 결혼시키겠다고 결심한다. 한편, 아담은 마을 소풍 때 만났던 아가씨들이 보고 싶어 병이 날 지경인 동생들을 위해 고대로 마인들의 풍속처럼 여자들을 납치해 결혼식부터 올리고 보자는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기는데…



성의 (The Robe, 1986) ALL 123분

2월 18일

감독 : 헨리 코스터

출연 : 리차드 버튼, 진 시몬스, 빅토르 머처, 마이클 레니

티베리우스 황제 치하 18년의 로마. 원로원의 아들 마르셀루스는 여자와 도박에 빠져 지낸다. 어느 날 마르셀루스는 노예시장에서 왕세자 칼리굴라가 원하던 그리스인 노예 드미트리우스를 왕세자보다 높은 가격을 불러 차지한 일을 계기로 예루살렘 수비대로 쫓겨난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다른 두 사람을 십자가형에 처한 이후, 예수님의 성의가 나타나는 악몽에 시달린 끝에 자유인이 되어 떠난 드미트리우스의 손에 들어간 성의를 찾아내 없애버리기로 결심한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에게 큰 감명을 받고 기독교인이 된다.



그의 선택 (His Choice, 2007) 12 100분

2월 25일

감독 : 권순도

출연 : 최범호, 오한나, 권오중

1936년 마산. 평양의 독립운동가 조만식 장로는 주기철 목사를 찾아가 “목사님 같은 분이 평양에 꼭 필요하다” 하며 간곡히 설득한다.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평양으로 떠나 산정현교회에 부임한 주기철 목사는 교회의 경건함과 말씀으로 무장된 삶의 중요성을 설교한다. 그즈음 개신교 교단인 평양노회는 “신사참배를 종교적 행위가 아닌 국가적 행위로 본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굴복한다. 그러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라며 신사참배를 반대 하던 주목사는 교회에 부임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투옥되는데…

★ 교구별 새가족 명단(2023년 9월~12월)

주 안에 한가족

외국인예배

HONEY MIN
SU LATT MYINT
ENEBISH SANJID
BOLD KHATANBAATAR
CHINBAT ARIUNZAYA
TSOGTJARGAL RENTSENKHAND
TSOGTJARGAL BADAMKHAND
BADAMTSETSEG ERDENEZAYA
BUYANTOGTO

국제예배

최시인 김다예
Nance Ashley Ann
Jong Thomas
Samuel Riko
Saputra Livinia
Justicia Ajeng Renstra
Widjanarko Ellena
Stevany
Margareth
Matheus Leonard

대학부예배

남하영 박세현

청년부예배

김지완 박다연 백혜정 이민영 임승민
오상욱 정창수 오윤정 박채진

7교구

권구우 권규희 권오훈 권희은 권희진
김강현 김담연 김도연 김동연 김일출
김종흡 김진수 명주은 문해선 박성희
송지수 신유리 신이레 오정현 원성숙
유지혜 이하엘 이하은 이현정 정수교
정채우 천은영 한진이 황서우 황윤균

10교구

권오찬 권은경 김경현 김려원
김로아 김순자 김태연 백승완
안예율 윤영화 이재남 이정자
임갈렙도후 임호진 장준연
장중섭 정석훈 최수아

16

고양·일산
금촌·파주

16교구

김경순 박채운 백민승 백송훈 백숙현
백재승 백정은 오아영 유영일 이용순
이정례 이태이 최시안 주은주 하라임
한시은 한우진

6교구

김수환 김시온
김영옥 김은혁
김태리 신동의
신훙선 여서율
이영민 이은원
이정애 장연준
정재희 최임순
한재진 홍미경

6

강서·구로·양천

9교구

김사랑 김철환 김하윤 노시현 박사윤
배인철 우석희 이동훈 이지훈 이진영
이창임 이해자 전명호 전주연 정나엘
조인욱 최임서 한경훈

14

인천·부천
시흥시·광명시

14교구

강리원 강지원 김순봉
김용의 김지애 박은숙
신은은 우아점수 임수아
정춘자 황선연 황시율

5교구

김의건 김이서 김이안
김한준 박애자 박창균
송이례 양영은 현정원

7

서대문·은평

9

마포·영등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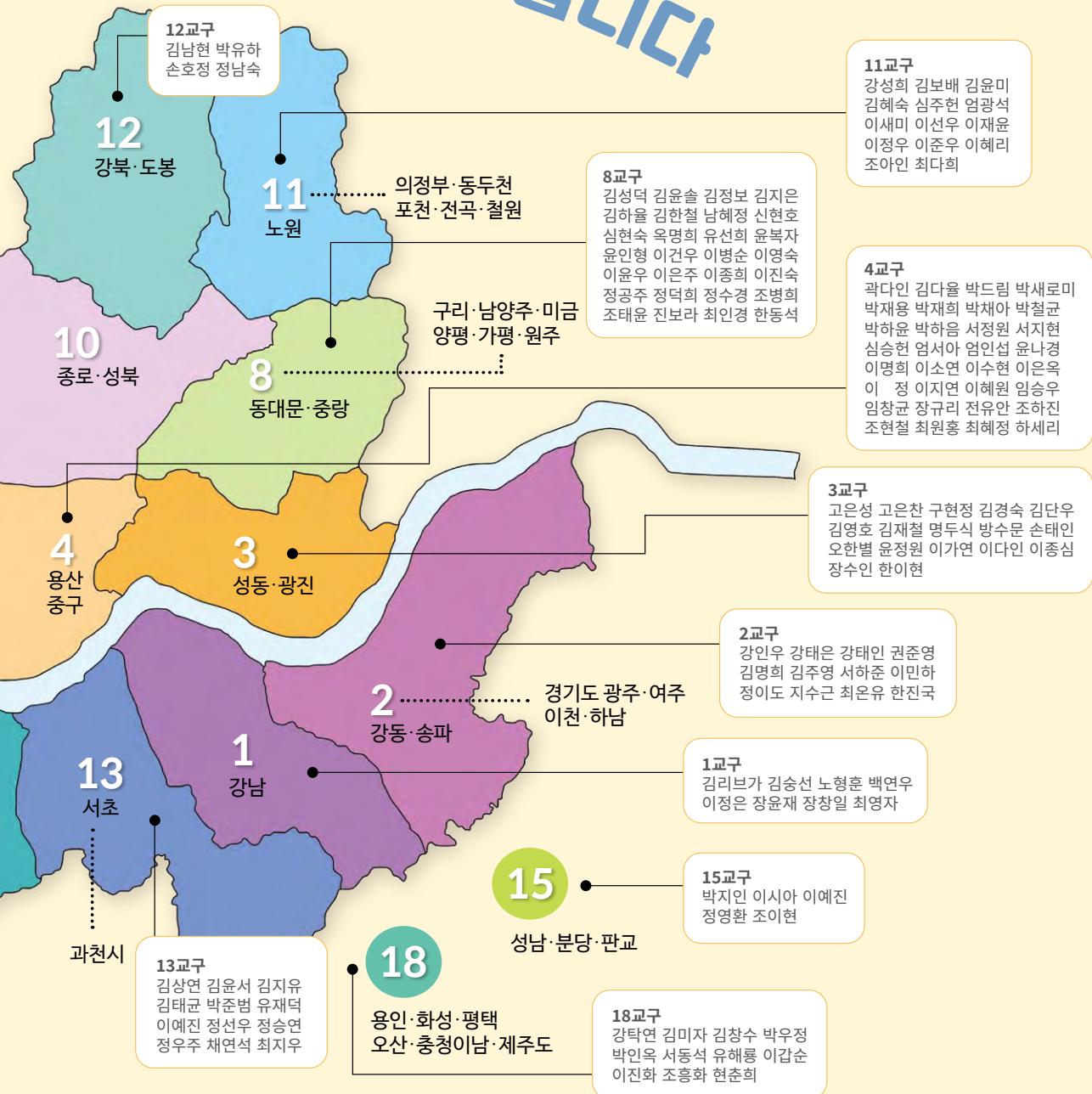
5

관악·동작·금천

17

수원·안양·안산
군포·의왕

되심을 기뻐합니다



★ 유아세례(2023년 12월 24일 세례)

성명	성별	교구	구역
강서아	여	18	035
강주안	남	08	006
강하린	여	03	014
김도윤	남	18	039
김도하	여	08	020
김리안	여	18	039
김하율	여	08	052
김하은	여	09	059
명준서	남	03	047
명준우	남	03	047
문태주	남	16	034
박드림	남	04	098

성명	성별	교구	구역
서한결	남	18	038
송지안	여	14	049
신수아	여	18	035
신지호	남	18	035
예하엘	남	17	052
우지유	여	13	023
유이든	남	16	014
윤시온	여	04	050
이지안	남	06	042
이채윤	여	08	041
임수아	여	14	058
장아서	남	11	0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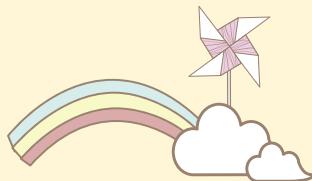
성명	성별	교구	구역
전예슬	여	14	048
전유안	남	04	098
정이나	여	10	070
조주아	여	04	048
조태윤	남	08	047
조하진	남	04	046
최연재	남	02	015
하라임	여	16	012
한시은	여	16	009
한이준	남	13	026
한태영	남	06	001
홍이도	남	10	047

★ 세례(2023년 12월 10일 세례)

성명	성별	교구	구역
강재윤	남	09	040
김규현	남	16	033
김기수	남	11	022
김아름	여	17	045
김옥주	여	15	026
김유아	여	80	888
김중민	남	08	067
김진미	여	12	016
김혜경	여	09	049
노진호	남	16	058

성명	성별	교구	구역
류정희	여	10	057
문성진	남	16	027
박종석	남	13	042
박지영	여	04	073
백주아	여	10	060
서창재	남	06	040
송진규	남	03	028
양시은	여	07	058
오태환	남	06	074
우하윤	여	16	064

성명	성별	교구	구역
유강희	여	10	038
유재환	남	06	048
이 건	남	04	053
이재영	남	07	027
이준호	남	10	028
임 영	여	10	051
장유진	여	08	027
장지호	남	11	055
정연식	남	04	065
정희정	여	07	023



성명	성별	교구	구역
조수호	남	13	038
주동준	남	02	064
채다희	여	11	030

성명	성별	교구	구역
최광문	남	06	059
최보민	남	13	041

성명	성별	교구	구역
최상태	남	04	080
최상환	남	08	048

★ 입교(2023년 12월 10일 명단)

성명	성별	교구	구역
가은혜	여	02	010
감규민	남	11	030
강예슬	여	14	043
고예원	여	17	050
김도현	남	14	015
김미주	여	04	050
김민재	남	04	054
김성현	남	06	045
김수아	여	03	027
김신애	여	18	001
김예나	여	08	072
김예성	남	04	032
김예원	여	11	026
김재환	남	02	072
김주원	남	14	021
김하준	남	02	066
민주은	여	03	003
박서희	여	13	022
박수빈	여	01	029
박신언	남	07	053

성명	성별	교구	구역
박요한	남	80	888
박지수	여	18	018
백선욱	남	16	034
백승재	남	09	019
신예영	여	60	888
신예진	여	60	888
양세정	여	04	013
양예은	여	06	029
오하현	남	14	052
윤세정	남	15	029
이건하	남	07	063
이서윤	여	17	007
이서진	여	09	020
이성혁	남	09	057
이예슬	여	09	005
이오남	여	13	032
이윤지	여	18	040
이한나	여	16	053
장수현	여	09	039
장아원	여	18	002

성명	성별	교구	구역
정지유	남	04	070
조우영	남	06	030
조은서	여	04	072
조한복	남	14	052
조현우	남	06	010
조현우	남	06	028
채희진	여	13	012
최규원	여	05	014
최주하	남	04	098
최지유	여	18	022
최하윤	여	10	031
최현우	남	10	007
하주영	여	17	051
한광현	남	02	038
한예은	여	07	023
한우주	여	11	006
홍지은	여	12	052
황우주	남	02	072
황주하	여	05	043
황지원	여	06	031



2024년 제직부서 신임 차장(안수집사 및 권사)

북한선교부	의료선교부	사회봉사부	교육부	
				
홍성표	최경국	이덕주	유병천	
				
목양부	전도부	제자양육훈련부	새가족부	
강명옥	최영호	강신웅	전태성	
				
김동환	박상수	김동환		
음악부	친교부	상담부	경조부	
				
김호진	강현근	변향용	김관용	
			김성락	
홍보출판부	IT미디어부	재정부		
				
조지형	소남호	강명구	박승근	
			김은형	
			변계환	
시설관리부	자원봉사부	서무부	예산위원회	감사위원회
				
이호정	최은영	김준섭	이상근	신언병
				현재호

2024년 부서지도 신임전도사 / 제직회 서기단

유
치
부



전성은

유
년
부



양장엽

초
등
부



신지원

소
년
부



이동현

C
e
b
C



목정은

고
등
부



원종인

대
학
부



김홍재

청
년
부



한 빛



홍승표

교
사
교
육
원
부



권현준

제
직
회



서기 목홍균



부서기 김경희

1월 14일(주일) 열린
제직회에서 선출

예배와 기도로 시작한 2024년

예배위원회 / 목양부

2024년 새해를 맞아 교회와 성도들은 신년예배와 신년기도회를 통해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시간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기를 다짐했다. 새해 첫 날 두 차례(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30)에 걸쳐 드려진 신년예배는 '영락이여, 올라가라(사사기 1:1~2)'는 표어 아래 새해 첫 예배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린 시간이었다. 신년예배에서 '호르마로 가는 법(민수기 14:39~45, 21:1~3)'이란 제목의 설교를 전한 김운성 위임목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승리의 한 해 되기를 소망한다"며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신년예배 2부에서 거행된 임직식에서는 집사와 권찰, 구역장, 교사, 친양대원들이 기립하여 맡은 자로서의 충성을 주님과 교회 앞에 다짐했다.

신년예배에 이어 1월 1일(월) 저녁 7시부터 3일(수)까지(화·수·요일은 오전 6시와 10시 30분, 오후 7시) 본당에서는 신년기도회가 열렸다. 기도회 기간 매일 저녁 빌립보서를 주제로 1일 '무엇을 품을 것인가', 2일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3일 '어떻게 이를 것인가'라는 말씀을 전한 김운성 목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아 우리의 굳



은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능력 주시길 기도하는 한 해 되길 바란다"면서 성도들을 권면했다. 한편 2일과 3일 새벽예배와 오전 예배 시간에는 부목사들의 생생한 간증이 더해져 깊은 감동과 도전을 던져주었으며, 참석한 성도들 모두는 새해 벽두부터 기도로 시작하기를 결단했다. 작년 신년기도회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성도들에게 무료 식사가 제공되어 영과 육의 양식을 풍성히 채워주었고 시무장로들은 배식 봉사를 통해 섬김의 솔선수범을 보였다.

2024 선교부 자치단체장

제1남선교회 회장	조병준 장로	제1여전도회 회장	장은희 권사	부부선교회 회장	정상경 집사
제2남선교회 회장	박일수 안수집사	제2여전도회 회장	고은수 권사	청년선교회 회장	권세은 집사
제3남선교회 회장	강기현 안수집사	제3여전도회 회장	박정윤 권사		
제4남선교회 회장	이창곤 집사	제4여전도회 회장	한은영 집사		

무엇으로 기도할 것인가! '첫 달 기도드림' 특별금요기도회

목양부

교회는 작년에 이어 새해 첫 달을 '기도드림의 달'로 선포한 가운데 '첫 달 기도드림 특별금요기도회'가 1월 12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본당에서 열렸다. 12일 '무엇으로 기도할 것인가(갈라디아서 5:5~6)'란 제목의 김운성 위임목사 설교를 시작으로, 19일 한규삼 목사(충현교회 담임)가 '한 해를 여는 세 가지 기도 제목(빌립보서 1:9~11)', 26일 박성규 목사(총신대 총장)가 '만군의 여호와(사무엘상 17:45)'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이번 기도회는 새해 첫 주에 열렸던 신년기도회에 이어 영락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특별히 이번 기도회 기간



에는 50주년기념관 2층에서 어린 자녀 돌봄반(유아~초등생)을 운영함으로써 3040세대 젊은 부부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들… 여전도회 헌신예배

여전도회

여전도회 헌신예배가 1월 14일(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열렸다. '여전도회여, 함께 올라갑시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 날 헌신예배는 장

은희 권사(1여전도회장)의 인도로 고은수 권사(2여전도회장)가 기도, 한은영 집사(4여전도회장)가 성경 봉독을 맡았다. 헌신예배 강사로 강단에 선 상도중앙교회 박봉수 목사는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들(누가복음 16:10)'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신앙의 자세를 정립하는 충성스러운 여전도회원으로 쓰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여전도회 활동 기금으로 쓰여질 봉헌 순서에는 여전도회 연합찬양대 특별찬양과 박정윤 권사(3여전도회장)의 봉헌기도가 있었다. 예배에 참석한 여전도회원들은 1~4 여전도회 중점 선교사역을 담은 영상을 함께 관람한 후, 새롭게 쓰임 받기를 결단하며 '여전도회가'와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80주년 비전 사역의 첫 삽을 뜨다!...양산 사송영락교회 착공 감사예배

80주년기념사업회



영락교회 창립 80주년 기념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송영락교회 착공 감사예배가 1월 18일(목) 오전 11시 경남 양산시 동면 내송리 건축현장에서 열렸다. 감사예배에는 교역자 및 당회원, 안수집사회, 남·여선교회 임원 등 본 교회 성도 120여 명과 양산중앙교회 교역자, 당회원, 찬양대가 참석했다. 사송영락교회는 양산중앙교회(남임 정지훈목사)가 사송 신도시 종교 부지 약 354평을 봉헌하고 영락교회가 건축을 주관한 가운데 지상 3층 및 지하 1층, 건물 전체 면적 1760m²(533평) 규모로 올해 말 완공 예정이다. 김순미 장로

(80주년기념사업회 위원장)의 인도로 시작한 감사예배에서 김운성 목사는 '영광스러운 교회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교회가 되길 바란다"며 말씀을 전했다. 이어 정지훈 목사의 격려사, 엄정길 목사(부산 남노회장)의 축사 후, 이철신 원로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심재수 장로(교회 개척분과장)의 진행으로 경과보고, 테이프 커팅 및 첫 삽 뜨기 등의 행사를 마친 참석자들은 양산중앙교회로 이동하여 최근 새로 건축한 비전센터(교육관)를 둘러보고 오찬의 시간을 가졌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영락보린원에서 의료봉사

영락사회복지재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1월 21일(주일) 용산구 후암동 영락보린원(이사장 박홍준)에서 원생 32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펼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번 의료봉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후원 물품을 전달했던 행사에서 재능을 나누는 전문 의료봉사로까지 확장된 것으로, 의료자문의 필요성이 절실했던 복지시설로서는 그 의미가 크다. 방문 전 사전 설문 조사를 통해 아동들에 관한 기초정보를 수집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토대로 소아청소년

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가 이루어졌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지속적인 진료와 상담을 통해 아동들의 신체



적·정신적 건강에 필요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영락디지털역사관 제작·교회80년사 집필계약

80주년기념사업회

교회창립80주년 기념사업회 역사분과는 2024년 1월 4일 위임 목사실에서 집필진과 기념사업회임원진, 역사분과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역사관 제작 및 80년사 집필 계약식을 가졌다. 계약체결에 앞서 1부 경건회에서는 위원장 김순미 장로의 인도로 찬송가 383장 부른 후 역사분과장 김두형 장로의 기도, 인도자의 여호수아 4장 20~24절 봉독 후 "길갈의 열두 돌"제하의 말씀을 김운성 위임목사가 전했다. 2부 계약체결식에서 김운성 위임목사의 환영사에 이어 집필 총괄 박명수 교수의 인사말과 실무책임 장금현 교수 소개 및 집필 방향을 제시한 후 계약서에 교회를 대표해서 행정처장 김영철 장로와 총괄집필 박명수 교수의 서명이 있었다.



'경계를 넘어 새로운 땅에 도전하라' ... 신년기도회

교육부

교육부 신년기도회가 '경계를 넘어 새로운 땅에 도전하라(사사기 1:1~2)'라는 주제로 1월 27일(토) 오후 3시 드림홀에서 열렸다. 교육부 산하 13개 부서의 부서장과 임원, 교사, 멘토, 리더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날 기도회에서는 교육부장 박홍준 장로가 대표기도를 맡았으며 김운성 위임목사가 '교사의 기도(고린 도전서 11:1)'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 교사들을 격려했다. 이어 방덕 종 목사(교육전담)의 인도로 진행된 기도회는 부서 별 기도 제목을 공유하며 뜨겁게 부르짖는 시간을 가진 후 김운성 위임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 순서에서는 각급 교육부서의 사역 비전과 봉사자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다음 세대의 신앙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교회교육의 새로운 방향성과 비전을 공유하며 지속적인 기도로 이어 가기를 다짐했다.



류재욱 은퇴장로 별세

류재욱 은퇴장로가 지난 1월 20일(토) 향년 90세로 별세 했다. 1933년 평남 진남포에서 출생한 고인은 1950년대 후반부터 40여 년 동안 구역장과 교회학교 교사로 근속했고 1980년 12월 집사 안수, 1997년 12월 본 교회 제29회 시무장로로 장립을 받았다. 이후 2008년까지 당회원으로 선임된 고인은 상례부장, 목양부장, 자원봉사부장과 영락사회복지재단 이사 등을 맡아 헌신적으로 교회공동체를 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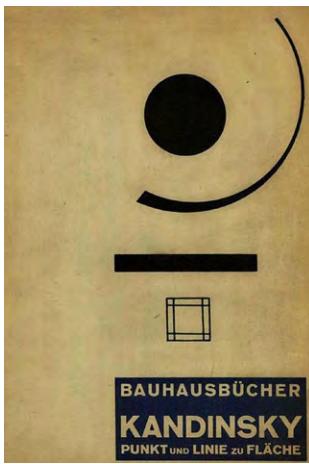
겼다. 고인의 장례예배는 1월 22일 (월) 오전8시 경남 마산 연세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녀 부부가 섬기는 마산 오아시스교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24일(수) 영락동산에서 김충섭 목사 집례로 하관예식이 드려졌다. 유족으로는 장녀 류현경 권사를 비롯해 1남 1녀를 두었다.



영락교회공원묘원의
자연보호와 공원화를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설 명절을 맞아 영락교회공원묘원을 방문하실 때 조화, 화환 등의 반입을 삼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영락교회공원묘원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공원묘원의 모범을 보이는 중요한 일입니다. 영락교회공원묘원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와 존중의 마음을 전달하며 자연을 보호하는 우리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예술의 본질은
'점, 선, 면'

Point and line to plane

1926,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예술은 그냥 사라지는 것들을 아무 이유 없이 만드는게 아니다. 예술은 목적을 가진 힘이며,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성장시키고 깊게 해준다. 인간의 성격을 더 깊고 정신적으로 만들며, 정신적인 분위기를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 바실리 칸딘스키

바실리 칸딘스키는 1866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태어난 화가로, 추상화 예술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그는 화가들이 뚜렷한 윤곽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저녁, 거꾸로 세워진 자신의 그림을 보고 갑자기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자신의 예술적 방향을 바꾸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칸딘스키는 '점', '선', '면', 그리고 '색채'와 같은 기본적인 조형 요소에 집중했습니다. 1921년에는 독일의 바우하우스라는 건축 및 종합 예술학교에서 연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의 강의는 나중에 <점, 선, 면>이라는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그의 예술론은 건축, 무용, 특히 음악과 같은 다른 예술 분야와 계속 협업을 하면서, 그의 영향력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그를 위대한 예술가로 만들었습니다. **만남**

글 정재원 편집위원



호를 축하합니다

600



2024년 2월호 통권 600호

발행 2024. 02. 01.

발행인 김운성 / **지도목사** 강승훈 / **편집인** 김태영 / **편집장** 권오란

편집위원 이형일 조지형 소남호 박선이 정용성 김성문 김윤영 류정현 안하윤 정재원

기자 김경우 박진현 이재향 이현지 인 미 최윤미 / **사진기자** 원종석 유승현 / **교열** 김응기 이광미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 **디자인** design D.I

600호를 발간하며

십계명의 기록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렸습니다.

5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월간지를 만든 거룩한 기록은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만남>은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글 배달부입니다.

<만남>은 하나님 지혜의 등불 같은 책이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영적 무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랜 세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만남>을 만들어오신 분들께 사랑의 큰 빛을 지고 있습니다. 그들로 생명을 살리는 <만남>을 만들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되어 문서선교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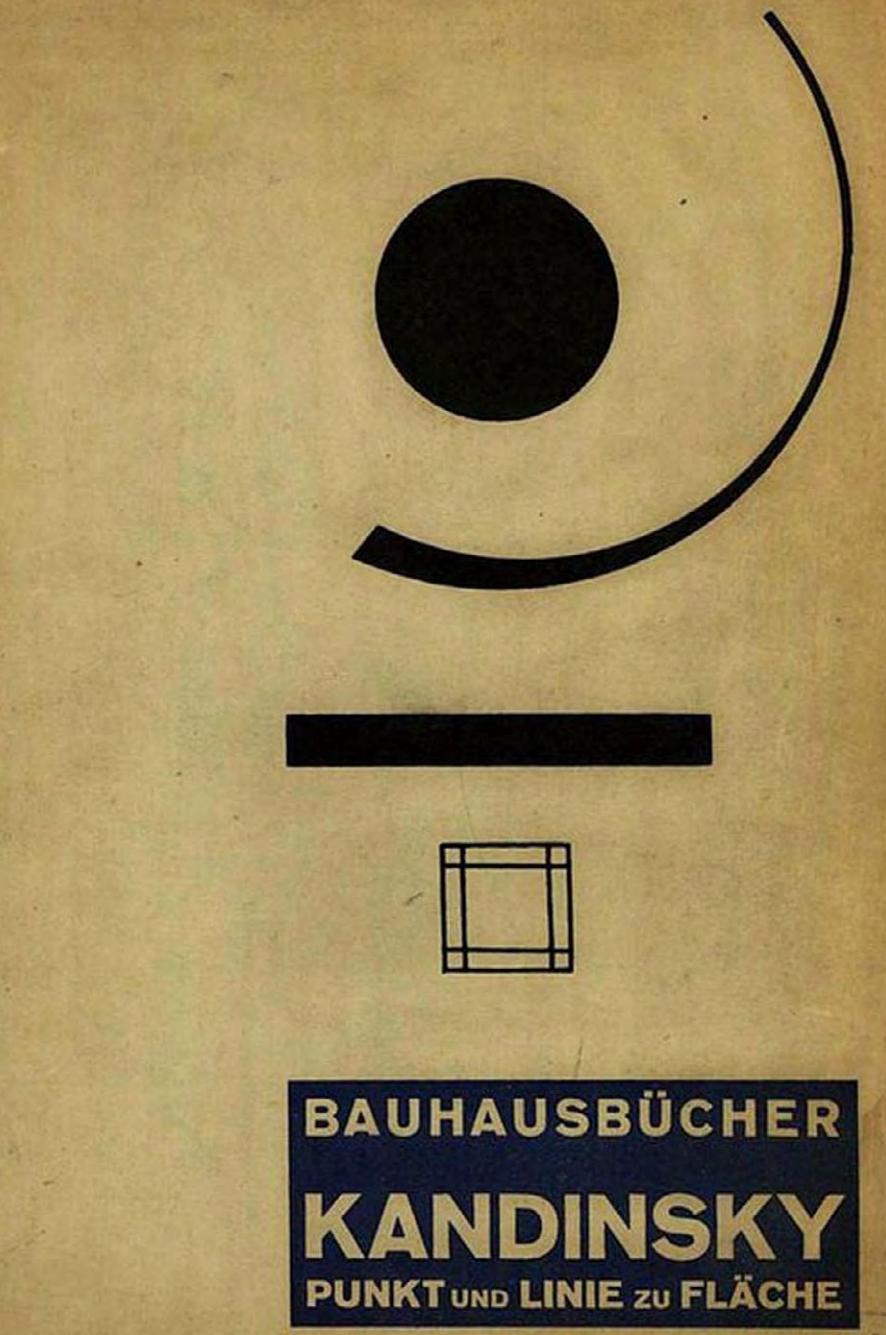
지금도 편집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문체와 어조 속에 잘 담기도록 기도로 지혜를 구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만남> 속에서 만나는 활자와 문장들이 성도들의 심령을 찔러 하나님의 거룩한 빛깔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만남>의 글을 통해 교회를 바꾸고,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읽는다는 것은 공기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만남>이 따뜻한 외투같이 어려울 때 손 내밀어 주는 친구가 되어 성도들을 위로하기 원합니다. 또한 <만남>을 통해 성도님들이 더욱 성숙하여지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사귐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성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출판부장 김태영 장로





북커버
점·선·면 1926, 바실리 칸дин스키(Wassily Kandinsky)